

조선후기 體驗과 想像의 日本*

-日本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김정숙**

|| 차례 ||

1. 서론
2. 체험을 통해 목격한 일본
 - 1) 극한의 분노에서 관찰과 인정으로 : 사행단의 눈에 비친 일본
 - 2) 낯선 동경과 감탄 : 표류민이 경험한 일본
 - 3) 극도의 분노와 生還에의 열망 : 被虜人의 일본
3. 체험과 想像의 소설화 : 『남윤전』 속의 일본
4. 결론

【국문초록】

타자에 대한 시각은 경험하는 이의 지식체계와 환경,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조선후기 직접 체험한 일본의 형상 또한 통신사와 표류민, 피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러한 체험이 반영된 문학작품 역시 다양한 양태를 보였다. 1617년 종사관이었던 이경직은 포로쇄환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곳곳에 드러내었으며 그들의 화려한 풍광을 보면서도 비난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 후 백년 후 신유한은 『해유록』에서 일본의 풍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조선의 관습상 바람직하지 않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류민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일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며 낯선 세계에 대해 감탄과 동경을 보낸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 편견도 갖지 않았던 표류민이기에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 포로들의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2-A00081).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기록 속에는 일본에 대한 무한한 적개심과 생환에의 열망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강항과 노인의 기록에서는 일본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곳곳에 드러냈고 정희득은 부친을 뵈고 자하는 소망을 부각시켰다.

또한 일본을 직접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에서도 피로인의 경험이 반영된 「남윤전」과 「조완벽전」, 「최척전」에는 풍부하고 화려한 문물에 감탄하면서도 강한 반감을 드러내던 포로의 시각이 드러난다. 반면 「육미당기」 속 일본은 독자들의 소망을 허구적 소설화한 것으로 일본과 일본인의 모습은 매우 왜소하고 희화화되어 있다.

주제어 : 조선후기, 일본, 사신, 사행록, 표류민, 포로, 「남윤전」, 상상

1. 서론

타자에 대한 인식은 보는 이의 경험과 지식체계, 그리고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상과 거리가 먼 인식을 보이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타국과의 교류가 제한적이며 중국 쪽 정보에 의존해 있었던 조선의 타국에 대한 인식은 주로 중국문헌을 통한 선 체험적 이해인 경우가 많아 실제 그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타국인들과의 직접 교류나 대화는 그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 중 하나가 조선시대 빈발했던 표류의 경험이었다. 특히 琉球에 대해서는 중국 측 자료인 『續文獻通考』나 『吾學編』의 정보에 따라 食人の 풍습을 지닌 야만적이고 폭력적 나라로 오해하다가 사신간의 접촉과 표류민들의 경험을 통해서 매우 순박하며 ‘금은보화가 넘치는 지상낙원’으로 인식하기도 했다.¹⁾

1) 김정숙, 「조선시대 필기·야담집 속 琉球 체험과 형상화」, 『한문학논집』 32, 근역한문학회, 2011.

본고에서는 타자에 대한 주류적 시선과 그 밖의 다양한 시선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시선들이 생겨나게 된 원인과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琉球의 예에서 확인했듯 타자에 대한 시선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주류적 시선이 실상에 부합하는 시선도 아니었다. 도리어 하층민이 다수인 표류민들이 직접 목도한 유구와 그 경험 이 기록된 표류기나 필기·야담집의 내용이 더욱 의미있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후속작업으로 조선시대 일본에 대한 다양한 시선 중에서 특히 일본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게 된 일본에 대한 시선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한다. 일본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장본인이며 조선에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한 부정적 존재였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계급의 高下나 시기의 先後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일본을 곱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보여주듯이 일본사행단의 경우도 시간에 따라 편파적 시선이 인정하는 시선으로 바뀌기도 하며, 표류민의 목격담 속에 일본은 야만인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물론 일본에 대한 절절한 분노감은 <임진록>을 비롯한 임진왜란 관련 이야기에서처럼 극도로 편파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일본을 직접 체험한 이들의 눈 속에 일본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즉 그토록 부정적이었던 일본이 대상에 따라, 시간에 따라, 형상화된 장르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접 체험에 의한 일본관 및 일본 형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볼 것이다. 먼저 정부의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방문한 사행단의 시선, 조선시대 수없이 반복된 표류민들의 시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폭압적으로 끌려간 被虜人들의 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체험과 소문이 형상화된 문학작품 속 시선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선을 따라가 각각의 특성과 차이, 그러한 차이가 있게 된 원인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연구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자료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자료적 측면과²⁾ 임진왜란 이후 극화된 夷狄觀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사행록의 경우 1617년 종사관의 자격으로 포로쇄환을 위해 일본에 갔던 이경직이 지은 『扶桑錄』과 1711년 제술관으로 간 신유한의 『海遊錄』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사행록은 사행의 목적과 사신의 신분의 차이에 따라 내용과 시선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한다.

漂流民의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조선왕조실록』의 표류민 기록과 1696년의 『漂舟錄』, 1817년의 『日本漂海錄』 등을 살펴보고, 被虜人의 기록으로는 강항의 『看羊錄』과 노인의 『錦溪集』과 『금계일기』,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문학작품으로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가서 사건이 일어나는 『남윤전』과 『조완벽전』, 『육미당기』, 『최척전』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체험을 통해 목격한 일본

1) 극한의 분노에서 관찰과 인정으로 :

사행단의 눈에 비친 일본

임진왜란에 의한 자존심의 훼손과 후금에 의한 병자호란 및 명청 교체라는 역사적 격변에 의해 조선은 명을 계승하는 유일한 문화국이라는 의미

2) 조선초기에서 임진왜란 전까지 65회의 사행이 있었지만 온전한 사행록은 송희경의 『일본행록』이 유일하다. (하우봉, 『조선초기 대일사행원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113면)

에서 소중화를 자처하게 되었다. 문명국인 조선에게 일본은 夷狄이었기에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조선후기 朝野를 막론하고 팽배해져 있었다. 물론 조선전기에도 조선에게 일본은 꺾하의 대상이었으나 포용의 대상이었지 조선후기처럼 배척이나 멸시까지는 아니었다.³⁾

이런 상황에서 1617년(광해군 9년) 사절단의 종사관으로 동행한 李景稷의 『扶桑錄』에는 일본에 대한 극심한 분노감과 이적시하는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번 2차 통신사행은⁴⁾ 포로 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경직은 사행하는 내내 조선인 포로를 한 명이라도 더 쇄환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는 배가 되고 포로 쇄환을 방해하는 그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비난하였다.

왜인들의 풍속이 사환(使喚)하는 사람을 가장 요긴하게 여기므로, 조선의 포로는 태반이 왜인의 노복(奴僕)이 되어 있는데, 왜주인들이 매양 공갈하기를, “조선 사람으로서 쇄환된 자는 혹은 죽이고 혹은 절도(絶島)에 보내며, 또 사신이 각자 불러 모았다가 바다를 건너가서는 그 다소(多少)에 따라 바로 제 종으로 만들어 사환으로 부려먹는다.” 하므로, 저 사정을 모르는 이들이 천만 가지로 의심이 생겨 그 고국을 그리는 정을 끊게 되니, 왜인들의 교묘하고 간사함이 너무도 분한(憤恨)스럽다.(8월 22일)

대마도에 도착한 후, 대마도인들이 포로쇄환의 대가로 노골적으로 재물을 요구하고 간교한 계락을 부리고 있음을 간파한 이경직은 ‘원수’의 나라에서 대접을 받는 것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마치 뱀 앞을 지나가는 것 같으며 극심한 혐오감을 드러내었다.⁵⁾ 그렇기에 이번 사행은 걸음걸음이 고통이

3) 하우봉, 『조선시대인의 세계관과 일본인식』, 같은 책, 32~38면.

4) 조선후기에는 德川幕府에 12회의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서 세 차례의 사절단은 회담겸쇄환사로서 1636년 이후 정례화된 9차례의 통신사와는 구별되지만 보통 합쳐서 12회의 통신사로 부른다. 이경직의 1617년 사행은 제 2차 통신사행이다.

5) 이경직, 『부상록』, 7월 12일. “마음속에 한 생각은 매양 원수인 적이라는 데에 있으므

요, 차마 죽지 못하고 온 것이기에 그들이 주는 선물도 멀쩡한 정신으로는 받을 수 없었다.

국가에서 왜인을 견제[羈縻]하는 계책은 실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나,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를, 비록 백번 죽더라도 잊을 수 없다. 비록 바다에 빠져 죽거나 칼로 자결(自決)하지 못하여 참고 여기에 왔으나, 한 차례 마시고 한 차례 먹을 때마다 분기(憤氣)가 창자에 가득해지는 데, 그들의 물품을 받아서 낭탁(囊橐)에 간직한다는 것은 혈기(血氣)있는 사람으로서 차마 할 바가 아니었다. (9월 6일)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은 그가 마주치는 일본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하는데, 大板(오사카)에 도착해서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하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하고(8월 12일) 일본인의 풍속이나 성품에 대해 비난하며 시춘 간에 결혼하는 풍습이나 혼례나 제례에 대해 폄하하였다.(10월 18일) 10월 18일의 기록은 부산에 도착한 뒤 임금에게 바치는 ‘聞見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행록에 일반적인 항목이니, 대개 일본의 지형에서 역사, 정세, 풍습, 문물에 대해 전문한 바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경직은 일본에 대해 객관적인 서술을 하기도 하지만 ‘흉악하고 독한 성질(兇悍慘毒之性)’을 가졌다거나 ‘승냥이와 뱀 같은 무리(眞一豺狼蛇虺之類)’라는 등의 감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전반적인 통신사 기록을 볼 때, 사실 이경직의 이러한 태도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전쟁 후 국교회복과 포로 쇄환을 목적으로 했던 1607년 제 1차 통신사의 부사였던 慶暹의 『海槎錄』이나 1655년 6차 통신사의

로 비록 예모(禮貌)가 근간하고 접대가 정성스러워도 죽히 위로되지 않았고,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거나 올빼미 같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이 깜짝깜짝해서 뱀이 앞에 지나가는 것 같으니, 이번 걸음이 고통스럽기만 하였다.”

종사관이었던 南龍翼의 『扶桑日錄』, 1682년 7차 통신사의 漢學으로 동행했던 金指南이 쓴 『東槎日錄』은 작자의 신분과 목적은 달랐지만 대개 여정과 개인적 소회를 간단하게 기록한 것들이다. 이 중에서 경섬의 사행은 이경직과 마찬가지로 포로 쇄환을 목적으로 한데다가 1607년은 정유재란 바로 직후였는데도 『해사록』에는 간단한 여정에 대한 서술만 있을 뿐이다. 이는 이경직 바로 뒤인 1624년 回答副使였던 姜弘重의 『東槎錄』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런 서술상의 차이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의 개인적 성향을 우선 지적할 수 있고, 다음으로 경섬과 강홍중이 부사였던 것과 달리 이경직은 매일 매일의 일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종사관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경직은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임무를 띠고 일본에 갔지만 그가 훨씬 더 일본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며 그것이 그의 『부상록』에 반영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사행록에는 일본에 대해 것처럼 날선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외국의 새로운 문물을 기록하거나 여정을 간단히 적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향을 조선후기 사행록으로 갈수록 강해지니 그 대표적인 예가 1719년 제 9차 통신사의 제술관이었던 신유한의 『海遊錄』이다. 신유한은 대마도에 도착한 뒤 대마도주를 만나는 예와 관련하여 약간의 갈등이 겪기도 하는데 이는 18세 이후 조일간에 변화된 정치적 관계로 인해 빚어진 것이고, 신유한으로서는 조선을 대표하는 사신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 『해유록』에는 일본에 대해 부정적 편견이나 분노감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博多津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는 신선의 나라라고 감탄했고 민가의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살림에 흥미를 느낀다. 그리고 제술관으로서 신유한은 매일매일 시문 요구에 대응하느라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大板에서는 글을 칭하는 자가 다른 곳보다 배나 많아서, 혹은 닭이 울도록
 자지 못했고, 음식을 놓고도 입에 넣었던 것을 토할 정도로 분주했다. 酬應의
 괴로움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도 오히려 대마도 왜인이 막아서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사신의 館이 깊고 엄중하여 소위 찾아온 書生이
 만약 초라하고 낮은 평민의 무리라면 법에서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통역을
 해주거나 禁令을 주관하는 것도 권한이 대마도에 있었으므로 전부터 대마도
 왜인이 중간에 조정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었다.(9월 4일)

『해유록』에는 일본인들과 창화한 것 외에 거의 매일 느낌을 시로 적어
 산문기록과는 또 다른 감상을 전해준다. 특히 9월 9일 오사카의 창녀와 男
 娼을 보고 지은 「浪華女兒曲」과 「男娼詞」는 그가 타국의 이질적인 풍속
 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선 사신들은 남
 녀간에 같이 목욕을 하고 사춘간에도 결혼이 허용되며, 유곽이 발달한 일
 본 문화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며 비난한다. 신유한도 청루 기생들
 의 외설적 형상이 추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하였지만 ‘정욕(情欲)의
 근원은 남녀보다 깊은 것이 없’어 막을 수가 없음을 인정하며 「詩經」의
 풍과 위풍처럼 교화(交和)이 자한 자료로 「낭화여아곡」을 짓는다고 하였다. 「낭
 화여아곡」은 30수 쌍이악부체 형식으로 娼女가 화자가 되어 감정, 풍습 등
 을 노래한 것이다. 무분별하게 남자를 받아들이는 기생을 약간 비꼬기도
 하지만 기생의 생활상을 상당히 자세히 표현하여 당시 오사카 주변의 화려
 한 유흥공간을 보는 듯이 그렸고, 때론 방안에서 남녀의 모습을 과감한 묘
 사로 그리기도 했다.

낭군의 머리는 푸르기가 오이 같고 / 郎頭綠如瓜

나의 이빨은 회기가 박 속 같네 / 儂齒白如瓠

박이 나서 오이넝쿨 안으면 / 瓠生抱瓜蔓

어디엔들 얹히지 아니 하리 / 何處不縈紆

(남자는 모두 머리를 꺾었고, 여자는 이[齒]에다 검은 칠을 하는데, 다만 기생의 이빨은 희다.)⁶⁾

남자와 여자의 정사 장면을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강렬하게 표현하였고 비유 또한 탁월하다. 신유한이 교화의 자료나 후대 채집하는 군자들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고 하였지만 이처럼 일본 기생의 생활을 충실히 묘사한 것은 끊을 수 없는 남녀간의 정욕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남창사> 10수에서 男色이 일본 도처에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시 속에는 기생보다 아름다운 남창의 외모를 연꽃이나 달을 빌어 칭찬하기도 하였다.⁷⁾ 『해유록』의 말미에 부록된 『聞見雜錄』에도 일본의 성문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보인다. 同姓 간의 결혼이나 兄死取嫂 등의 풍속에 대해서는 금수와 같은 음탕한 일로 비난하였지만 기생이나 男色은 괴이한 풍속이라고는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진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사는 마을을 지날 때면 털끝이 쭈뼛할 정도로(9월 11일) 그 역시 기본적으로 일본의 악행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전란으로부터 백여 년이 지난 뒤이고 그간 일본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기에 일본에 대해 감정적 접근보다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해졌다. 1711년의 신유한은 일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조선의

6) 신유한, 『해유록』, 9월 9일. 『浪華女兒曲』 중 26번째 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7) 신유한, 『해유록』, 9월 9일. 『男娼曲』, “상매주가 익고 은어가 자랐기에 / 桑梅酒熟鰵魚大 너를 데리고 물결 따라 비단 뱃줄 풀었네 / 載爾隨波錦纜舒 가을빛이 거울 위에 뜬 걸 보니 / 解道秋光浮鏡面 푸른 적삼 붉은 옥이 바로 연꽃일세 / 綠衫紅玉是芙蓉 (대관 사람은 이런 뱃놀이를 가장 좋아 하는데, 황금선(黃金船)에다 술을 싣고 옥동자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니, 참으로 가을 물에 연꽃과 같다. 상매주는 빛깔이 우리나라 소주와 같다. 왜인은 은구어(銀口魚)를 조(鰵)라 한다고 한다.) 남창의 고운 얼굴을 선명한 색채를 통해 부각시켰다.

가치관에서 사뭇 떨어진 풍습에 대해서도 그들의 본성으로 인정해 주는 여유가 있었다. 이는 『해유록』 곳곳에 보이는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1617년 종사관이었던 이경직의 『부상록』에 강하게 노출되었던 일본에 대한 분노의 시선은 근 백년 뒤 신유한의 『해유록』에는 거의 희미해져 있다. 이경직이 이성보다 앞서는 감정으로 인해 일본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면, 신유한은 비판적 시선도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조선과 다른 이질적 문화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비판보다는 관찰을 하고 이국의 문화와 소통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1763년 계미사행의 서기로 동행한 원중거의 『화국지』는 일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간의 기록들을 총망라하는 일본종합 해설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화국지』는 기존의 사행록이 일기체 형식인 것과 달리, 천·지·인 3권에 일본의 지리와 역사, 학문과 생활, 제도와 조일 간의 관계를 나누어 기록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어느 사행록 보다 훨씬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화국지』의 이러한 기록 태도는 일본에 대해 감정적 비판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조선후기에 일본은 이미 감정적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면밀한 관찰을 해야 하는 나라였기에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인정한 것이다.

2) 낮선 동경과 감탄 : 표류민이 경험한 일본

한 연구에 의하면, 1592년부터 1909년까지 전체 743건의 해난 사고를 통해 8,771명의 전라도 주민이 일본에 표착하였다고 한다.⁸⁾ 일본에 표류한 조선인들은 전라도와 경상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실제의 수는 이보

8) 정성일, 「전라도 주민의 일본열도 표류기록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사학연구』 72, 한국사학회, 2003, 118면.

다 많았겠지만 이 조사를 통해 표류민의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초기 일본에 표류한 주민의 견문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조선에서 이들의 전언을 통해 일본 및 유구의 상황을 탐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479년 성종 10년에 기록된 제주도 표류인 金非衣 일행의 표류 경험이다. 이들은 해남사람으로 1477년 진상할 감자를 가지고 가다가 해상에서 표류하여 일본의 여러 섬과 유구, 살마주(규슈의 가고시마), 꽤가대(규슈 후쿠오카현), 일기도, 대마도를 거친 뒤 환국할 수 있었다. 이들은 유구국왕의 우려에도 거리상으로 먼 중국의 강남행보다 가까운 일본을 선택하였다. 유구국왕은 일본인들의 성정이 표류인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김비의 일행이 살마주에 도착한 뒤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며 풍부한 대접과 화려한 기와집에 감탄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유구에서 목격한 바는 번다할 정도로 상세히 기록하였지만 일본에 도착한 뒤로는 호송의 과정만 간단히 기술되어 일본에 대한 이들의 구체적 인식은 확인하기 어렵다. 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유구의 경우, 날씨부터 구체적 일상까지 탐지의 대상이었지만 일본은 잦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타국에서 불안한 이들에게 일본측이 보여준 환대와 그들의 화려한 문물만으로도 표류민들은 일본에 대해 낮은 동경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다만 수십 명의 군사가 칼을 차고 집을 지키는 모습이나 3, 4만명의 군인들이 小二殿을 공격하여 6개의 머리를 장대에 효수하는 모습은 표류민들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다.⁹⁾

임진왜란이 지난 한참 뒤인 1756년 동래부 무관이었던 이지향은 부산에

9) 이후 임진, 정유년의 왜란은 조선인이 일본을 극도로 혐오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때는 주로 포로로 끌려간 기록이 많고 표류민의 기록은 찾기 어려우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시기에는 표류민에 대한 기록이 없다.

서 영해로 가던 중에 일본 北海島에 표류하여 돌아온 경험을 『漂舟錄』으로 남겼다. 그는 아이누족과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고 생하기는 하지만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아이누족과 만나 물물교환을 하기도 하고 이곳을 다스리는 松前府로 가서 태수의 환대를 받았다. 표류하는 과정에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구조되고 난 후에는 이전의 표류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으니, 송전부의 태수, 新谷十郎兵衛, 승려인 瑞流 등과 시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송전부에서 江戸로 갈 때는 수많은 하인들이 뒤따르는 가마를 타고 가는 호사를 누렸다. 에도에 도착하고 오사카와 대마도를 거쳐 부산포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록은 주로 여정만 간단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인상은 송전부에서의 경험 속에 드러난다.

그곳 큰 마을 중에는 수변장(守邊將) 한 사람이 있는데, 큰 관사(官舍)를 짓고 호위병에 둘러싸여 존중을 받았다. 백성이 5백여 호 거주하는데, 시장에는 물산(物産)을 벌여 놓았고 남녀의 의복은 극히 화려하고 묘했으며, 인물들은 영리하고 여자들은 아름다웠다. 구경꾼들이 양쪽 길가에 늘어서 있었는데,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다 좋아했다.¹⁰⁾

일본이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들의 의복이 화려하며 깨끗하다는 인상은 표류민들이 일본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는 느낌이었다. 앞의 김비의 일행이나 이지항 모두 천신만고 끝에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의 관리들은 정성껏 대접했고 이들의 한국을 도왔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외국 표류민을 대하는 정치 이태도였겠지만 생사의 고비를 넘어온 조선인으로서의 상·김비·감동스러운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류기 속에는 일본에 대한 우월감이나 임난 이후 확대된 적대감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일본표해록』은 1817년 풍계대사가 불상을 싣고 가다가 표류하여 일본

10) 이지항, 『표주록』, 7월 23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의 長崎島에서 약 7개월을 머물다 대마도를 거쳐 온 표류기이다. 분량은 다소 적지만 장기도의 의복이나 장식, 배의 모습 등을 자세히 관찰하였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기진(長崎鎮)은 큰 도시이다. 누각과 저택이 장엄하고 화려하였으며, 여 업집들이 즐비하였다. 중국 선박들과 아란의 여러 나라 선박들이 모두 여기에 정박하였다. 큰 배들이 서로 인접하여 앞바다에 가득 차 있었고, 물화가 폭주하고 사람이 많아서 이른바 ‘집집마다 금과 은이요, 사람마다 비단으로 수 놓았도다’는 말 그대로였으니,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황홀하게 하는 것이 이 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¹¹⁾

남자들은 모두가 청명하고 빼어났으며 여자들도 그러해서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많았고 사람을 회피하지 않았다 <…> 그들의 풍속은 매우 정결하여 방이나 정원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귀천이나 상하 할 것 없이 매일 목욕을 하는데 심지어 목욕물을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목욕이 성행함이 이와 같았다.¹²⁾

홋카이도와 나가사키의 규모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지향이 북해도에서 느꼈던 풍요로움을 풍계는 장기에서 목격했으며 그들의 정갈한 풍속 또한 감탄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이지향이 처음 북해도에 표착하여 원시부족인 아이누족을 대했을 때와 송전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풍계는 장기의 화려한 풍광에 감탄해마지 않다가 대마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인상을 받는다.

11) 풍계 현정, 『일본표해록』, 동국대 출판부, 2010, 48면.

12) 같은 책, 53면.

대마도 풍속은 지극히 교묘하게 속여서 일본과 달랐다. 표류한 사람의 옷과 음식은 본래 일본이 공급해 준 것인데 이것을 속여서 탈취하였으니 장기 사람들이 대마도 사람들을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대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¹³⁾

대마도는 고려 때부터 왜구의 소굴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정벌과 화유를 반복했던 곳으로 일본 본토와 분리하여 부정적으로 보았다. 위에서 일본 스스로도 대마도에 대해 ‘도적’이라고 비판한 것은 대마도인들이 조선 표류민들에게 매일 지급되는 음식의 상당량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거나 매년 조선에서 보내오는 米包와 雜物을 대마도주가 절반을 절도하는 등의 비리를 자주 저질렀기 때문이다. 대마도인의 비리는 이미 당시 일본 본토 인들이나 조선 사행단에 의해 누차 비난을 받았으니 표류민의 눈에 그들의 파렴치한 절도행위가 곱게 보였을 리 없다.

하지만 표류민들은 대마도나 북해도의 아이누족 등 일본 본토인들도 폄하를 하는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았다. 임진왜란 전후의 표류 기록이 없어서 당시 표류민들의 일본관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 표류민들은 일본을 침략자나 야만인으로 여기기보다는 죽을 지경에 처한 자신들을 구해주고 대접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처음 접하는 일본의 문물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표류민에 대한 구조와 생환은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정해진 규약이 있었기에 이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정치적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던 표류민으로서 일본에 대해 상당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미 임진왜란이나 왜구의 소란에서 시간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던 데다가 이념이나 정치적 관계를 따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일본에 대해 어떤 편견이나 적개심 없이 본대로, 느낀대로 표현할 수

13) 같은 책, 67면.

있었다.

3) 극도의 분노와 生還에의 열망 : 被虜人의 일본

7년간의 임진·정유년의 왜란으로 대략 10만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¹⁴⁾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일본에 의한 조선인 약탈은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노예 생활을 하나 동남아로 팔려나가곤 하였다. 또한 수많은 피로인들은 탈출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일부는 통신사의 포로쇄환의 기회에 조선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피로인들이 일본에서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섯 편의 자료가 남아 있으니, 강항의 『간양록』, 노인의 『금계일기』, 정경득의 『만사록』,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정호인의 『정유피난기』가 그것이다.¹⁵⁾ 이 중에서 『만사록』과 『월봉해상록』, 『정유피난기』는 정경득, 정희득, 정호인은 서로 형제간이

14)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의 수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가 많은데, 한국측 연구자들은 대략 1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문자, 「임진·정유왜란기의 조선 피로인 문제」, 『중앙사론』, 19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4, 44~46면.)

15) 이들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기빈, 「壬亂時被俘文人의 體驗의文學의 考察-‘看羊錄’과 ‘月峯海上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21, 한국한문학회, 1998.;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학회, 2010.;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금계일기’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 10, 새얼어문학회, 1997.; 김태준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박세인, 「睡隱姜沆의 시문학 연구-內傷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소재영, 「壬亂被虜들의 海外體驗-錦溪日記·看羊錄·海上日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9·10, 겨레어문학회, 1985.; 소재영·김태준 편, 『旅行과 體驗의 文學-일본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이채연, 「‘看羊錄’의 實記文學의特徵」,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학학회, 1992.; 이채연, 「壬辰倭亂捕虜實記研究」, 박이정, 1995.;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정두희·이경순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황폐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일지사, 1994.

고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에 있는 『월봉해상록』을 살펴보겠다. 이 외에 포로로 끌려간 白受繪의 『在日本長歌』나 安仁壽의 『安仁壽歌』와 같은 가사도 고국을 떠난 애끓는 심정이 여실하지만 주로 짙막하게 개인적 슬픔을 읊은 것이다.

강항과 노인, 정경득 형제는 모두 문인이었기에 조선에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경험을 글로 기록할 수 있었고, 적중에서 견문한 것을 일일이 적어 일본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후 일본에 대한 방비책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이 강했다. 따라서 이들 속에는 일본에 대한 감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최대한 일본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간양록』의 강항은 형조좌랑으로 휴가차 부모님과 있던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가족과 함께 이순신이 있는 통제영으로 향하다가 왜적에게 포로로 잡혔다. 『간양록』의 『涉亂事迹』은 일기체로 자식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죽는 모습과 포로가 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일본에 끌려가는 모습, 시시때때로 죽을 위험에 처하는 모습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간양록』에는 포로가 된 자신에 대한 한탄과 함께 일본에 대한 무한한 적개심이 곳곳에 드러나 일본이 ‘아귀의 소굴’이라거나 ‘사람의 얼굴을 쓰고 야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비난하였다.¹⁶⁾ 『간양록』에서 강항의 감정이 가장 격양된 부분은 같은 포로인 동료들에게 쓴 『告俘人檄』이다.

이 검은 이빨(漆齒)의 더러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실로 橫目の 異類로서,
우 임금의 자취가 미치지 못한 곳ियो, 주나라의 궤도와도 같지 않은 곳이다.
顔師古의 華夷圖에 실리지 아니했고, 柳宗元은 또한 風土記에서 빼 놓았다.
참람히도 日出의 천자라 일컬으며 남몰래 해외의 지방을 차지했다. 임금 처치

16) 죽을 지경에 처한 자신을 도와준 왜인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도 하지만 풍신수길의 왜인들에게 조선인을 죽이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내었다.(강항, 『간양록』, 조선 선비 왜국 포로가 되다, 보리, 2004, 20~21면.)

하기를 바둑 두듯이 하여 亂臣・賊子가 후세에 발자국을 맞대었고, 사람 보기를 초개같이 하여, 하찮은 물건이나 세세한 연고라도 모두 淫刑에 몰아넣었다.

격문이기 때문도 있지만 강항은 일본이 전혀 올바르지 않은 나라임에도 감히 천자라 칭하며 살육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포로로 있으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던 강항은 풍신수길을 미화하는 시에 먹칠을 하고 비난하는 시를 그 옆에다 버젓이 써놓는가 하면 板島縣의 성문에 하늘의 입을 빌어 그들을 비난하는 방을 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견 유치한 장난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포로의 처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가 죽음도 꺼려하지 않았을 정도로 분노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궁창에 튕구는 것 같은 처욕을 참으며 그가 탈출하고자 했던 까닭은 고국을 그리는 마음뿐 아니라 자신이 입수한 일본관련 문헌과 지도를 임금에게 바쳐 왜국의 정세를 파악해 방어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¹⁷⁾ 이에 『賊中封疏』와 『賊中聞見錄』을 통해 왜국의 정세 변화와 동향, 풍신수길의 죽음과 그 뒤의 정세, 관직제도, 지리적 형세, 임진·정유년에 들어온 왜장들의 이력 등을 꼼꼼히 기록하였다. 일본으로 끌려오던 과정을 쓴 『涉亂事迹』에는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곳곳에 드러냈지만 일본의 정황을 전하는 부분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는 건문한 것을 사실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월봉)해상록』은 진주 士人 정희득이 1597년 정유재란 때 일본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1599년에 돌아올 때까지의 기록을 짤막한 일기형식으로 쓴 『海上日錄』과 돌아온 뒤 임금에게 올린 『自賊倭中還泊釜山日封疏』와 『陳賀疏』, 일본의 지리와 풍토를 적은 『附 日本總圖』와 권 2의 漢詩로 이

17) 강항, 같은 책, 41면.

루어졌다. 포로로 끌려가는 배에서 어머니 이씨와 아내 이씨, 누이동생, 형수 박씨가 모두 물에 빠져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한 데다가 부친과 헤어지면서 생환할 것을 약속했기에 글 전체에서 부모와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다. 『海上日錄』은 일기로 되었는데 대개 한 두 줄로 간단하게 썼는데 거의 하루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니, 그는 꿈을 꾸어도 부모 생각이고 들판의 풀이나 달을 보거나 봉어를 보면서도 고향생각에 눈물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阿波州의 적장 家政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보다 이별한 부친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말하며 감정에 호소했고, 대마도에서 한국이 지연되자 平調信과 玄蘇에게도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 조선으로 보내줄 것을 애원했다.

간은 꺾어지고 창자는 찢어지는 듯, 매양 빨리 죽지 못하는 것이 한 되오 또 늙은 어버이의 생사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만 리 밖 자식의 심정이 그야말로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노부가 해안(海岸)에 내려질 때, 날씨는 마침 추운데 의복도 벗었으니, 그 정경을 생각하면 참으로 망국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 나이는 이미 늙고 마음은 이미 병들었으나, 다만 이 쓸 곳 없는 인생 고국에 돌아갈 생각만 간절합니다.¹⁸⁾

정희득의 이러한 태도는 강항이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강항과 정희득은 비슷한 시기에 포로로 잡혀왔기에 풍신수길의 죽음이나 포로로 잡혀왔다가 탈출에 실패해 죽었던 이엽에 대한 소문 등에 대해 공히 들어 알게 되는데, 이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은 사뭇 달랐으니 정희득의 가장 큰 목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고국으로의 생환이었기 때문이다.¹⁹⁾ 정희득의 시에 일본에 대

18) 정희득, 『海上日錄』, 6월 14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한 조선인들의 일반적 시선 - 살인을 일삼고 형벌이 가혹하며 야만적이다 - 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²⁰⁾ 대부분이 자신의 처참한 심경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해상록』의 서문과 발문을 써 준 이들은 모두 그의 효자, 충신의 마음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즉 정희득에게 일본은 어머니와 아내, 누이동생과 처형을 죽게 만든 원수의 나라이자 고국에 계신 부친을 만나기 위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탈출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그가 보는 모든 사물은 가족과 연결되고 행위의 모든 목적은 환국에 있었다. 그렇기에 『해상록』 전편에는 피끓는 분노보다는 절절한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에서 적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끌려간 노인의 『錦溪日記』는 그가 남원에서 일본, 다시 중국의 북경성으로 갔다가 북경으로 가서 환국하게 되는 긴 여정을 기록하였다. 현전하는 『금계일기』는 상태가 좋지않아 앞부분이 일실되고 일본을 탈출하는 부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끌려가기까지의 과정은 『금계집』 권 3 「雜錄」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노인은 薩摩州에서 藩主인 島津義弘 밑에서 포로로 있던 중 1598년 1월 15일 밤에 여러 포로들과 배로 도망치려다가 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계속해서 탈출의 기회를 노렸다. 결국 1597년 3월 중국인들과 중국으로 가서 1600년 정월에 환국하게 된다.

그는 일본에 있으면서 함께 포로로 있던 白受繪²¹⁾나 姜沆에게 시와 편

19) 강항은 풍신수길이가 죽자 그를 찬미하는 시에 먹칠을 하고 비난의 시를 쓰며 탈출의 기회를 노렸고, 이엽이 탈출을 하려다 발각되어 자살하며 지은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 화답시를 쓰며 그의 기개에 대해 크게 감탄하였다. 이에 비해 정희득은 수길이가 죽자 탈출할 기회임을 알고 탈출을 모의하지만 실행하지 못했고, 이엽의 시를 보고는 그를 荊軻에 비유하며 슬퍼했지만 계획인 부실했음을 안타까워했다.(정희득, 『海上日錄』, 8월 29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0) 정희득, 『해상일록』 권 2, ‘倭俗’,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戮爲耕作功爲首. 一字詩書識者誰. 尙佛家懸堂上畫. 酷刑多積市中屍. 人人腰下輝牛犢. 處處窓前對玉碁. 父母之喪三十日. 燒身舊俗本無祠)

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와 장렬하게 죽었던 이엽에 대해서 시를 지어 애도하기도 했다. 이들 시에서 원수를 갚아 설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고²²⁾ 한 倭僧이 생선과 채소를 가져다주자 원수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거절하기도 한다.²³⁾ 처음 탈출하려다 발각되었을 때 전혀 굴하지 않고 빨리 죽이라고 호통치던 일이나 원수의 음식을 먹지 않고 거절하며 설욕을 다짐하던 그의 모습은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지사의 모습마저 보인다. 노인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壬辰赴倡義陣」이라는 시를 짓고 의병을 모집하여 권율의 막하에서 왜적과 대치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기개는 앞의 강항이나 정희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금계일기』에는 그가 며칠에 걸쳐 중국인들과 일본을 탈출할 것을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단지 살아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체로 그가 몹시 바라는 것은 우리들과 배를 같이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탐지한 왜놈의 사정을 天朝에 고하고 포로로 일본에 있는 자들을 모두 쇄환(刷還)한 뒤 뒷날 복수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 하니, 그의 원통한 회포는 하늘에 사무치고 그 성의가 장합니다.²⁴⁾

이는 和泉館에 함께 있던 陳屏山과 李源澄이 복건성 差官인 林震號에

21) 白受繪는 자신의 포로경험을 「在日本長歌」라는 짤막한 가사로 남겼다.

22) 노인, 『錦溪集』 권 1, 「和泉州. 贈白友受繪」, “大丈夫人節. 愈堅寸鐵心. 蜚吹驚暗射. 鳩舌鬧狂言. 至恥號天查. 私冤叩地深. 誓雪君親怨. 長含矢石忱.”

23) 노인, 『錦溪集』 권 3, 「蠻徼陟(涉)險」, “有一倭僧. 以飯一器菜一盂魚一尾. 朝夕供饋. 公自以不知君親存歿. 却魚而只進蔬食. 又自憤歎曰. 嬴秦棄禮. 仲連欲蹈東海. 武王伐暴. 伯夷遂餓西山. 況此賊何等醜奴. 何等讎敵也. 到今不死. 食讎之食. 寧不愧於心乎. 千思百慮. 只圖還歸. 而無路渡海. 適遇務安士人徐景春. 即在國相親者也. 共敘懷土. 遂謀返國.”

24) 노인, 『금계일기』, 3월 15일,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게 노인을 소개하면서 중국에 데리고 가줄 것을 부탁하는 부분이다. 이에 임진혁이 노인의 기상에 감동하여 동행할 것을 허락한다. 현재 『금계집』이나 『금계일기』가 원본은 아니기에 노인이 일본에서 느꼈던 감정의 세심한 결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노인이 느꼈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강항의 분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의병을 모아 일본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그로서는 어떡해서든지 일본을 탈출해 복수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을 것이며, 중국을 거쳐 3년 5개월 만에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열망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세 명의 피로인들의 경험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들은 공히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생환에의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표류민들이 낯선 이국에서 대해 감탄을 하고 본인을 도와준 개인으로서의 일본인들에 대해 감사를 느꼈던 것과 달리, 이들은 피로인의 신분이기에 일본의 문물에 대해서 감동을 할 여유가 없었다. 특히 강항과 노인은 왜병의 침입에 의병을 모집하여 왜병과 맞서던 이들이었기에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기개가 전혀 꺾이지 않아 작품 곳곳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반면 정희득은 포로로 가는 배편에서 어머니를 비롯한 친지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친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잊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치는 모든 풍광은 고향 부모와 연결되었고 환국을 위해서라면 일본인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3. 체험과 想像의 소설화 : 「남윤전」 속의 일본

문학 속에서 타자의 형상은 작가의 창작의도에 따라 인위적이며 자아의 욕망이 투사되어 굴절된 형태로 나타난다.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힘

을 가지고 심리적 위축감을 강하게 주는 존재가 간혹 작품 속에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회화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실제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한낱 夷狄에 불과하다고 여기던 일본에 짓밟히게 되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일본은 조선 연안을 계속해서 도발하여 노략질이나 해대는 ‘倭寇’ 정도로 인식하던 일반 조선인들은 조선 땅 전체가 일본에 의해 유린되고 수많은 조선인이 일본의 포로가 된 사실에 경악하였다. 이에 『임진록』을 비롯하여 전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 속 일본이나 일본인의 모습은 매우 야만적이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란에 의한 포로들이 직접 목격한 일본에 대한 傳言, 혹은 소문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자 추악하고 야만적인 일본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여기서 조선인 포로의 눈에 비친 일본이라는 측면에서 『남윤전』 속에 형상화된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윤전』은 혼인 다음날 임진왜란이 발발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남윤이 왜왕의 부마가 되었다가 공주의 도움으로 풀려나오고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가족과 해후하는 가족의 이합을 그린 작품이다.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합이라는 점에서는 『최척전』이나 『김영철전』, 『정생기우전』 등과 유사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중국을 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남윤전』과 차이가 있고, 이들보다 신회복이 신흠 초야에 일본 오사카로 끌려갔다가 유구로 가서 왜왕의 부마가 된 후 조선으로 끌려온다는 『동야회집』의 『신회복』의 내용과 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신회복』의 주 배경이 유구(오키나와)라는 점이나 야담과 소설의 서사적 차이를 제외하면 두 작품은 상당히 흡사하다.²⁵⁾

25) 『신회복』에 대해서는 김정숙, 앞의 논문, 49~54면 참조.

『남윤전』에 대한 연구는 소재영에 의해 시작된 이래로²⁶⁾ 김연호에 의해 이본 및 작품 구조 등 전반적인 연구가²⁷⁾ 진행되었으며, 임진왜란 시기 문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언급되기도 하였지만²⁸⁾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남윤전』에는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남주인공이 왜왕의 공주와 천정배필임을 알고 결혼하는 내용이 핵심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남윤전>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포로의 실상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對倭 敵對感은 찾아볼 수 없다.<…> 남윤전이 전란을 간접배경으로 하여 부모에 대한 강한 효사상과 꿈을 매개로 한 운명적 道仙思想을 源脈으로 하여 적대감을 승화시키고”(소재영, 37쪽)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대사가 남윤이라는 개인의 천정연분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로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 『남윤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여타 서사물에서 왜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적대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호적이라는 점이다.”(김연호, 285쪽)

“사랑하는 남녀의 이합을 다루는 이러한 전기적 성격은 임란이라는 현실상황이 낭만적으로 착색된 듯한 감을 준다. 이런 점에서 포로 실기 문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망향에 대한 서러움 등과 같은 포로체험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못하다”(임채연, 140쪽)

위 연구자들은 모두 남윤이 왜왕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일본에 대한 우호적 시선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김연호의 지적처럼 공주와의 결혼은

26) 소재영, 『남윤전논고』, 『송전어문학』 6, 한남대 한남어문학회, 1977.

27) 김연호, 『남윤전고』, 『어문논집』 35, 민족어문학회, 1996.

28) 임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친정배필’에 의한 것이지 일본을 긍정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작품에서 남윤은 일본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러구러 행한 지 육삭 만에 왜국 서울 지경에 이르니, 물생이 풍등하고 비상한 곳이 없더라. 다만 풍속이 고이하여 예법이 없어 骨肉之親을 분간치 못하더라. 29)

내 이제 네 나라에 들어와 본즉, 땅이 부족하나, 백성이 부족하나, 신하가 부족하나, 무슨 부족함이 있어 무죄한 장졸을 만 리 타국에 보내어 함몰하게 하니, 너 같은 위인이 어찌 왕위에 거하여 천앙이 또한 두렵지 아니하라. 대장부 죽을지라도 어찌 개 같은 유 의 자식으로 결혼하여 몸을 더럽히며 너 같은 것을 임금으로 섬기리오. 대장부 죽을지라도 어찌 그러한 마음이 있으리오. 30)

일본에 대한 남윤의 이러한 시각은 정유재란의 조선인 포로들의 일반적 인 관점이었다. 물산이 풍부하여 부유한 나라, 그러나 조선인의 가치관에서 볼 때 괴이한 예법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었다. 게다가 남윤은 포로의 신분이었기에 일본은 죽어도 용납할 수 없는 나라였지 우호적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일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왜왕은 경박하고 감정적이며 폭력적인 인물이었으며,³¹⁾ 공주는 일본인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와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로 등장한다. 즉 남윤이 공주와 결혼한 것은 그가 왜왕의 딸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라는 일본을 강하게 부정하는 존재, 발 딛고 있는

29) 김기동 편, 『남윤전』, 서문당, 1984, 17면.

30) 같은 책, 34면.

31) 김연호는 작가가 왜왕에 대해서 상당정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왜왕이 패잔군을 데리고 돌아오는 왕궁충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백성을 지극히 생각해서가 아니라(김연호, 앞의 논문, 286면) 왕으로서 체모도 차리지 않을만큼 두려워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왜왕은 남윤이 부마를 거절하자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였다.

공간만 일본일 뿐 신선세계의 인물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작가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남윤과 공주가 생년월일도 같고, 신통력으로 남윤의 부모의 사망을 알려주어 효를 다하도록 도와주도록 하였고, 결정적으로 전생의 인연이라는 점을 결혼의 전제로 제시했다. 이처럼 공주에게서 일본색을 완전히 제거한데다가 공주가 죽기 전에 남윤을 탈출시키고 공주는 죽었으니, 남윤이 일본의 공주와 결혼했지만 일본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남윤이 왜왕의 공주와 ‘결혼’한다는 설정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작품에 묘사된 남윤은 ‘이마와 두 눈은 송나라 문장 文天祥과 같고, 귀와 코는 劉秀와 같고 입과 턱은 岳武穆과 같은, 문무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왜왕으로서는 쉽게 얻을 수 있었으나 남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도리어 추상같은 태도로 요구를 거절하였다. 또한 공주와의 결혼은 결국 남윤이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즉 남윤과 공주의 결혼은 남윤의 강인한 태도를 드러내 주고 조선에의 귀환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되었다.

다음으로 당시 조선인 포로들의 삶을 반영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유재란 뒤 수십만의 포로가 일본으로 끌려가 많은 경우는 일본인의 노비가 되었고, 일부는 의원, 승려, 도자기공 등으로 생업을 꾸려나갔다.³²⁾ 사신단과 표류민의 전언처럼,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 그들 중 많은 수가 일본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머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³³⁾

32)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생활』, 『호서사학』 36, 호서사학회, 2003, 194~196면.

33) 이경직, 『부상록』, 8월 22일, 8월 27일. 정희득, 『월봉해상록』, 12월 29일.

포로된 남원(南原) 사인(士人) 김용협(金龍俠)의 아들 길생(吉生)이 와서 뵈는데, 13살 적 정유년에 포로가 되었다 하였다. 말은 매우 더듬거리나 문자는 제법 알았다. 부상(富商)의 집 사위가 되었는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나 뜻을 쉽사리 결단하지 못하므로, 간곡하게 타일러서 보냈다. (『扶桑錄』, 8월 27일)

이외에 연암의 『書李邦翼事』에서 이방익의 부친인 광빈이 표류되어 장기도에 이르렀을 때 한 의사가 광빈을 사위로 삼고자 했을 때 광빈의 반응은, 연암의 작가적 필치를 감안하더라도 남윤의 태도와 많이 닮아 있다.³⁴⁾ 이처럼 『남윤전』에 보이는 일본에 대한 이중적 시선이나 당시 조선 포로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일본인들과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사실을 고려할 때, 남윤과 공주의 결혼은 일본인들과 결혼한 당시 표류민과 피로인들의 경험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야회집』의 「신희복」 이야기에 낙원으로 묘사된 유구의 모습이 표류민들이 경험한 유구의 모습과 닮아 있었던 것처럼, 『남윤전』의 일본도 표류민과 피로인들의 경험과 전언, 혹은 소문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윤전』에 그려진 일본은 포로인 남윤이 목격한 모습으로, 정유재란 때 수많은 포로들이 목격한 일본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니, 풍부하고 화려한 문물에 감탄하면서도 강한 반감을 드러내던 포로의 시각으로 일본을 형상화하였다. 『남윤전』 외에 간단하게나마 일본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에 「조완벽전」과 「최척전」처럼 포로로서의 경험을 그린 작품과 신라 태자가 왜국을 정벌하는 내용의 「육미당기」가 있다. 「조완벽전」은 조완벽이 정유재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중국, 안남 등지로 장사를 다닌 실화이

34) 박지원, 『書李邦翼事』, 『燕巖集』 제6권 별집. 광빈이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제 부모의 나라를 버리고 재물을 탐내고 여색에 연연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 이는 개돼지만도 못한 자이다. 더구나 나는 내 나라에 돌아가면 과거에 올라 부귀를 누릴 수 있는데 하필 그대의 재물과 그대의 딸을 탐내겠는가?”

다. 따라서 그가 포로가 되어 일본에서 노역을 심하게 했다는 점과 일본인들이 이익을 중시하여 배를 타고 장사를 잘 다닌다는 서술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최척전』의 옥영도 왜란으로 인해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혀 나고야에 포로로 갔다가 주인과 함께 장사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게 된다. 진주의 조완벽과 남원의 옥영은 모두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장사배를 타고 외국을 떠도는 신세가 되는데, 이는 당시 상당수 포로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에 비해 『육미당기』는 독자들의 소망을 허구적 소설화한 것으로 일본과 일본인의 모습은 매우 왜소하고 희화화되어 있다. 왜군이 신라를 계속해서 범하자 태자인 김소선이 왜병을 추격하여 筑前州(규슈의 후쿠오카현)에 가서 왜장인 등수충을 베고 江戸(에도)까지 가서 왜왕에게 항복을 받고 공물을 바치도록 한다. 작품 속에서 일본인들은 시종 경박하고 신의 없고 간교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충과 효를 잃지 않았던 김소선과 극명히 대비된다. 그런데 『육미당기』의 이러한 부정적 일본관은 구체적 경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선후기 일반적 대일관이다. 김소선이 에도까지 진격해서 한 번에 항복을 받아낸다는 설화적 설정이나 부정적 존재로서의 일본인의 형상은 사명당의 『征倭譚』과 마찬가지로 민중들이 지닌 상상과 욕망에 의한 것이다.³⁵⁾

4.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조선인들이 일본을 체험한 경로는 세 가지로 먼저 사행단의 경험이 있다. 사행단은 모두 공적

35) 권혁래, 「16·17세기 동아시아적 경험과 기억으로서의 일본인 형상」,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54면.

인 임무를 갖고 일본을 찾지만 개인적 성향이나 신분, 그리고 시기에 따라 일본에 대한 시선이 사뭇 달랐다. 1617년 종사관이었던 이경직은 포로쇄환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곳곳에 노정하였으며 그들의 화려한 풍광을 보면서도 비난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 후 백년 후 신유한은 『해유록』에서 일본의 풍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조선의 관습상 바람직하지 않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로 조선인의 일본 체험은 표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류민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일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며 낯선 세계에 대해 감탄과 동경을 보낸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 편견도 갖지 않았던 표류민이기에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부정적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일본 체험은 다수의 조선인 포로들에 의해서이다. 정유재란 후 주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진 조선인 약탈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들 피로인들의 기록 속에는 일본에 대한 무한한 적개심과 생환에의 열망이 강하게 느껴진다. 강항과 노인의 기록에서는 일본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곳곳에 드러냈고 정희득은 부친을 뵈고자하는 소망을 부각시켰다.

전란으로 인한 포로 체험이 소설적으로 형상화된 『남윤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남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왜왕을 부정하고 폄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공주와의 결혼은 그녀에게서 일본색을 완전히 소거하고 천정배필이었음이 밝혀진 뒤에야 이루어진다. 그러나 민중의 설화적 상상에 의해 이루어진 『임진록』이나 『육미당기』와 달리 『남윤전』에서 일본은 조선인들이 실제로 체험한 일본, 화려한 문물에 대한 감탄도 그대로 드러난다.

현재도 그러하지만, 조선시대에 일본은 감정적 선입견 없이 마주하기가 어려운 대상이었으니, 대표적으로 『임진록』에서 보이는 일본이 조선후기 대일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 대일관이 이처럼 강한

부정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해도 실제로 목격한 이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전란의 상처가 흐려지면서 자료에 보이는 일본의 모습은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변모는 후기로 갈수록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넓은 시각을 취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자료

姜沆, 『看羊錄』

魯認, 『錦溪集』, 『錦溪日記』

申維翰, 『海游錄』

李景稷, 『扶桑錄』

李睟光, 『趙完璧傳』

鄭希得, 『月峯海上錄』

(이상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강항, 『간양록, 조선 선비 왜국 포로가 되다』, 보리, 2004, 11~1면.

장효현 역주, 『육미당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5, 19~510면.

풍계 현정, 『일본표해록』, 동국대 출판부, 2010, 30~173면.

2. 논문

권혁래, 『16·17세기 동아시아적 경험과 기억으로서의 일본인 형』,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31~61면.

김기동 편, 『남윤전』, 서문당, 1984, 11~69면. 김문자, 『임진·정유재란기의 조선 피로인 문제』, 『중앙사론』, 19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4, 33~62면.

김연호, 『남윤전고』, 『어문논집』 35, 민족어문학회, 1996, 267~293면.

김정숙, 『조선시대 필기·야담집 속 琉球 체험과 형상화』, 『한문학논집』 32, 근역한문학회, 2011, 37~57면.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의 일본생활』, 『호서사학』 36, 호서사학회, 2003, 189~198면.

소재영, 『남윤전논고』, 『송전어문학』 6, 한남대 한남어문학회, 1977, 31~46면.

이훈,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1999, 33~193면.

임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72~225면.

정성일, 『전라도 주민의 일본열도 표류기록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사학연구』 72, 한국사학회, 2003, 91~131면.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越境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 『고전문학연

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189~222면.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17~283면.

Abstract

A Study on Experiences and Japan in Imagination
in Late Joseon's Literature
- Various viewpoints of Japan

Kim, Jeong-suk

The viewpoints of others are depicted different according to the knowledge systems, environments, and periods of those who experience them. It is the same with the depictions of Japan in late Joseon Dynasty; they were all different among the Tongshingsa, drifters and kidnapped people that all had first-hand experiences of Japan. The literary works that reflected their experiences also showed a wide variety of aspects. Serving the country as a Jongsagwan in 1617, Lee Gyeong-jik was part of the Korean envoy for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He revealed his extreme anger towards Japan here and there and took a critical approach to Japan's splendid scenes. About a hundred years later, Shin Yu-han closely observed Japan, pointed out the wrong customs of Joseon and recognized Japan's culture in *Haeyurok*.

Drifters basically had a very positive perception of Japan, which saved their lives, and expressed their admiration and aspiration for the strange world. Having no political bias in the most extreme situations, they were able to develop those ideas and perceptions. On the other hand, the records of Joseon prisoners were filled with their infinite antagonism against Japan and strong desire to return home alive. Gang Hang and No In expressed their bitter grudge against Japan throughout their records, while Jeong Hee-deuk highlighted his wish to see his father again.

Literary works whose backgrounds were set in Japan and reflected the experiences of Joseon prisoners such as *Namyunjeon*, *Jowanbyeokjeon* and *Choicheokjeon* also reveal the prisoners' strong antagonism against Japan as

well as their admiration of its rich and gorgeous civilization. On the contrary, *Yukmidanggi*, which is a fictional novel about Japan driven by the wishes of readers, depicts Japan and Japanese people to be very small and comic.

Key-words : late Joseon Dynasty, Japan, envoy, kidnapped Joseon people, *Sahaengrok*, 『*Namjunjeon*』, experience

김정숙

소속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소 : (136-751) 서울 성북구 돈암 2동 한신아파트 107동 802호

전화번호 : 010-3221-8613

전자우편 : kimjs8613@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